

MUJINE

Heritage

RALPH
LAUREN

The Soft Ricky Bag

11

NOVEMBER 2013

COAT ACADEMY

MAISON & OBJET 2013

가을밤의 낭만음악

정경호의 모든 하루

HERITAGE OUTERWEAR

*Shop the iconic world of Ralph Lauren
at the online flagship store*

RALPHLAURE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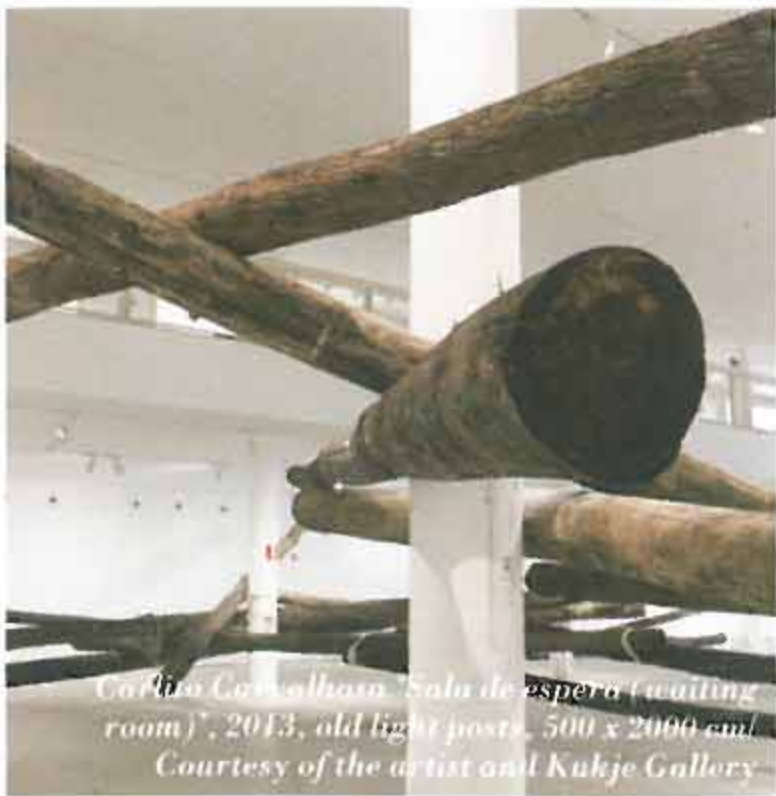
Art



mixrice, (어떤 식으로든) 진화하는 식물(부분 2), 2013, pigment print, 75x95cm (3)

이상한 정글에서 사는 '우리들'

이탈리에 에르메스의 2013년 마지막 전시는 미얀마 양곤에서 활동하는 작가 Wah Nu과 Tun Win Aung 부부 팀 nnncl과, 조지은과 양철모가 함께한 국내 프로젝트 팀 mixrice의 차지다. 아시아라는 대륙에 함께 묶여 있지만 거리만큼 문화적으로 낯설기도 한 두 나라의 풍토에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개발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자연을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작품 주제로 내세웠는지, 전시장으로 '이식' 혹은 '이주'된 이들의 신작을 통해 알아보는 <nnncl & mixrice> 듀오 전시에 "절대 가볼 것!"을 추천한다.



Carlito Carralho, Sala de espera (waiting room), 2013, old light posts, 500 x 2000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가볍고도 무거운 감정

"텅 빈 종이 같은 장소를 대면할 때마다 카르발로사는 마치 놀라운 간결함을 가지고 움직이는 제도사처럼 도발적인 동시에 매력적인 대화를 구축해낸다." 브라질 출신의 설치 작가 칼리토 카르발로사는 건축적으로 공간을 변형하는 아심찬 작업을 통해 관객에게 미묘한 혼돈을 경험하게 한다. 공간을 재해석해 '고요한 아름다움의 순간'을 창조해내는 탐구를 지속해온 그가 11월 12일까지 첫 번째 한국 개인전을 갖는 국제갤러리 3관 전체를 탈바꿈시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존 갤러리 공간 내에 12개의 육중한 전신주를 설치한 작업이다.

또 다른 선유도

조성룡 건축가에게서 문자가 왔다. '10월 6일, 선유도 공원으로 놀러 오세요, 재미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때 가도 좋은 그곳인데, 찬란한 가을이었으니 그 예쁜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다. 조성룡 건축가와 수류산방이 1년에 걸쳐 '선유도 이야기'를 재정비했다. '선유도 이야기'는 공간인 동시에 전시명. '비어 있어' 아름다운 선유도는 긴 회랑을 따라 철컹이며 돌아가는 슬라이드 필름 속에서 만날 수 있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서울의 공공 장소 18곳'은 선유도를 닮은 바람직한 건축물들의 모임이다. 선유도가 있어 서울이 좋다는 사람은, '선유도 이야기'에서 또 한번 감동을 느낄 게 분명하다.



Dakota (Hair), 2004 / Somewhere Place, 2011 / Jonas Barn Snow Disco, 2009 ©Team Gallery, New York

라이언 맥긴리의 사진은 로큰롤처럼, 인생을 미치도록 즐기고 싶은 정도까지 끌어내리는 '힘'이 있다. "내게 젊음이란 불안과 좌절이 아닌, 모든 불가능에 도전하는 힘이자, 긍정적인 희망이다. 젊음이 가진 특유의 낙천적인 감성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진가는, 우리 시대 '청춘'의 일상 순간에서 불안이 해방과 쾌락으로 승화되는 자유, 기쁨, 환희의 감정을 한데 녹인 희망의 메시지를 카메라로 담는다. 25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계 유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그는, 2010년 뉴욕 개인전 오프닝 당일 몰려든 인파에 전시장 문을 닫고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는 '초유의 광경'을 빚게 만들었듯, 전시마다 뜨거운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11월 7일부터 <라이언 맥긴리-청춘, 그 찬란한 기록> 전시를 여는 대림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은 또 어떤 '사고' 같은 경험을 하게 될까?